

KT·LG유플러스 영업정지 첫 날

고객 발길 뚝 끊긴 대리점... 직원들 무급휴가 보내

“임대료·월급 무슨 수로 마련할지 암담”

이동통신유통협, 영업정지 철폐 결의대회

“영세사업자는 먹고 살지 말란 말 이죠.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 날인 13일. 광주 충장로 일대에 모인 200여곳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간혹 영업정지 사실을 모른 채 방문하는 고객만 점원의 안내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텀 비어있는 매장에 삼삼오오 모인 대리점 직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영업정지가 ‘개인사업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동사들은 크게 손해보지 않겠지만, 가입자 인센티브로 영업을 하는 대리점은 당장 45일간 수입이 없어 어떻게 버틸지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장로에서 한 KT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모(30)씨는 “손님이 없다고 문마저 닫을 수는 없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45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지 막막한 심정”이라며 “이달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무슨 수로 마련할 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LG 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인 윤모(35)씨는 “직원 3명이 하루종일 구

경한 손님이 다섯명이 채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영업을 가능하지만 소비자 증거를 해야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수입이 없어진 대리점 업무 대부분이 ‘올려 가져

먹기’로 직원들에게 2주씩 무급휴가를 주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SK텔레콤 대리점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 다른 이동사의 영업정지 소식에 전 반적으로 소비자의 발길이 끊긴 데다 이동 3사의 경쟁이 없으니 정책도 좋지 않아 손님들이 외면한다는 설명이었다.

대리점과 달리 이동3사의 모든 휴대폰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다소 상황이 나아보였지만, 판매점 역시 이 전보다 손님 숫자는 절반 가량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은 기기변경 쪽에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한 KT 대리점 업주는 “자극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해 KT 쪽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식은 오고 있지 않다”며 “기기변경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 프로모션을 만들어 영업정지 기간을 버텨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소비자 결의대회’를 열고 30만 유통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에는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 1300여명이 참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인 13일 휴대폰 대리점이 몰려 있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KT 대리점 앞에 영업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LG유플러스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보조금 경쟁 주도 이유

이동3사 304억 과징금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영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해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

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시기는 이날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별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이다.

‘카풀 문화’ 점점 사라져간다

광주 사랑방신문 카풀광고

2010년 1300건→올 27건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는 ‘카풀’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생활정보신문 사랑방신문에 따르면 올해 1~2월 게재된 ‘승용차 함께 타기’ 광고 건수는 27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54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

년 1354건을 기록했던 카풀 광고는 2011년 685건, 2012년 505건, 2013년 329건으로 3년 연속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카풀은 목적이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해 통행하는 문화로,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과거에는 선호하는 이들이 많았다. 사랑방신문은 이러한 카풀 문화가 최근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각박한 사회 분위기가 탓이라고 분석했다.

연동별로는 살펴보면 지난 2010

기부금 일부 연금 지급 ‘기부연금’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으로 예금과 저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 제도를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동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제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클라세’ 제습기 신제품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13일 ‘클라세’(Klasse) 제습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국내 제습기 시장 진출에 나섰다. 신제품은 고효율 컴프레서를 채용, 15ℓ 기준 국내 최저 소비전력(300W)을 달성해 전기료 부담을 줄였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Advertisement f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Grand Opening Special Discount Event)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clothing and a map of the location at 162-211 Gwangju-gu, Gwangju.

Advertisement for '결혼 정보' (Wedding Information) by Imperium, featuring a list of recommended professions for brides and groo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rvice.